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지지가 참여빈도, 참여태도 및 성취기대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 학교급별 다집단 분석

손수경\*

## I 알기 쉬운 개요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은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 핵심역량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은 그 중요성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모, 교사, 친구, 청소년지도자의 사회적지지가 청소년활동 참여(engagement) 변수들을 매개로 공동체의식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초·중·고 학교급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발달시기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활동의 참여빈도, 태도, 기대가 높았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식 역량도 높게 나타났다. 부모지지는 모든 학교급에서 공동체의식 역량에 대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으나, 교사지지는 친구지지는 청소년지도자지지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급에 따라 맞춤형 개입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우석대학교 혁신사업단 조교수, 교신저자,  
skson@woosuk.ac.kr

투 고 일 / 2022. 3. 7.

심 사 일 / 2022. 5. 10.

심사완료일 / 2022. 5. 23.

DOI/10.14816/sky.2022.33.3.77

## I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청소년활동의 참여(engagement)를 매개로 공동체의식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초·중·고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2018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지지는 청소년활동 참여빈도, 참여태도, 성취기대를 높이고 이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모든 학교급에서 다른 지지원보다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는 모든 학교급에서 청소년활동 참여빈도와 참여태도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성취기대와의 관계는 중·고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모든 학교급에서 청소년활동 참여빈도와 성취기대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참여태도와의 관계는 중·고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청소년지도자 지지는 모든 학교급에서 청소년활동 참여빈도, 참여태도 및 성취기대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를 매개로 한 공동체의식에도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청소년지도자지지는 부모지지 다음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 청소년활동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활동, 사회적지지, 청소년활동 참여, 공동체의식 역량, 다집단분석

## 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은 학업에서 단순한 지식의 수용이나 암기가 아닌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의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 2005년 OECD DeSeCo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OECD, 2005)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사고력, 창의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대인관계, 시민성 등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5.9.23.). 이렇듯 역량중심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3항에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 교류활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규정된다. 청소년활동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들이 미래사회를 능동적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다양한 활동 및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권일남, 전명순, 서재범, 2021). 이에 최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에서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의 중점과제인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을 발표하고 청소년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개발하고자 하였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보도자료 2018.12.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소년활동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청소년활동 시간은 하루 평균 2분 미만으로 다른 OECD 나라(5분~8분)보다 짧고(통계청 보도자료, 2020.07.30.), 지역공동체활동 참가율도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 및 역량 개발을 위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설득력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활동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지되고, 그들의 행동, 태도, 기대 등 청소년 활동 참여(engagement)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관련 변인이 청소년활동에 대한 성과로서 역량 개발에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실증적 검증 결과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핵심역량 중에서도 공동체의식 역량에 대한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공동체의식이란 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자신을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속해있다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타인과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공과를 공유하는 의식을 말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핵심역량 중 공동체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지역적·국가적·세

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하위요소로서 시민 의식, 준법정신, 질서 의식, 공정성과 정의감, 참여와 책임 의식, 협동과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정신을 제시하고 있다(백순근, 신안나, 김연경, 손주영, 윤승혜, 2017).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여러 심리적 변인의 변화 및 역량 효과를 검증하였지만(예: 조아미, 신태수, 2012; 최충식, 박문수, 2012),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개인의 실천적 행동과 태도 및 기대심리에 어떠한 변화를 형성하여 역량개발을 도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를 부모, 교사, 친구, 청소년지도자로 구분하고,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그들의 청소년활동 참여(행동, 태도, 기대)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역량 개발에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을 설명하는 긍정적 청소년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이하 PYD) 이론은 본 연구의 이론적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PYD 이론은 그동안 청소년 발달과 적응 연구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문제 중심적 접근(예: 음주, 흡연, 자살, 반사회적 행동, 폭력, 학업중퇴 등)이 아닌 긍정적 발달에 영향 주는 발달자산(Developmental Assets)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Benson, 2006; Lerner, 2005). 발달자산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을 말하는데, 이는 외적 발달자산과 내적 발달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적 발달자산은 청소년을 둘러싼 외부환경으로부터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긍정적 발달 경험과 기회를 말하며,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 등이 있다. 내적 발달자산은 청소년 자신의 책임있는 선택 및 의사결정 등에 필요한 내재적 역량과 가치를 말하며, 학습전념, 긍정적 가치 등으로 구성된다(Benson, 2006; Scales & Leffert, 2004).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적 청소년발달 이론에서 제시하는 외적·내적 발달자산이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모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Bruyere, Wesson & Teel, 2012; Hughes, Witherspoon, Rivas-Drake & West-Bey, 2009). 따라서 청소년 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해 지지받는 것과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외적 발달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와 성취기대를 갖는 것은 내적 발달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발달성과 중 하나인 공동체의식 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모형에서의 변인 간 관계는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신명옥과 장덕희(2017)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가족친밀도,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의 매개효과가 초·중·고의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적응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신혜정과 서영석(2006)의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친구지지만이 적응행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고, 중학생은 부모지지만이, 고등학생은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적응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의 의존도가 높지만 학급이 높아질수록 가정에서 친구, 교사 등 학교 환경으로 사회적지지 관계의 중심이 변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청소년활동 참여를 매개로 공동체의식 역량에 미치는 효과 또한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경로가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 관계 검증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급격하게 발달하는 청소년 시기에 적합한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청소년활동 참여(engagement)와 역량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효과를 초·중·고 세 개 학급으로 구분하고 다집단분석을 통해 구조경로에 차별적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청소년활동 참여(engagement)를 매개로 공동체의식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 참여는 양적 측면에서의 행동적 참여를 의미하는 참여빈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태도 그리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성취기대로 구분하여 매개변수로 상정하였으며, 부모, 교사, 친구,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지가 이러한 변인들을 매개로 공동체의식 역량 향상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은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인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은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 1) 부모, 교사, 친구,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청소년활동 참여빈도, 참여태도, 성취기대를 매개로 공동체의식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가?
- 2) 이러한 변인 간 관계는 학교급(초·중·고)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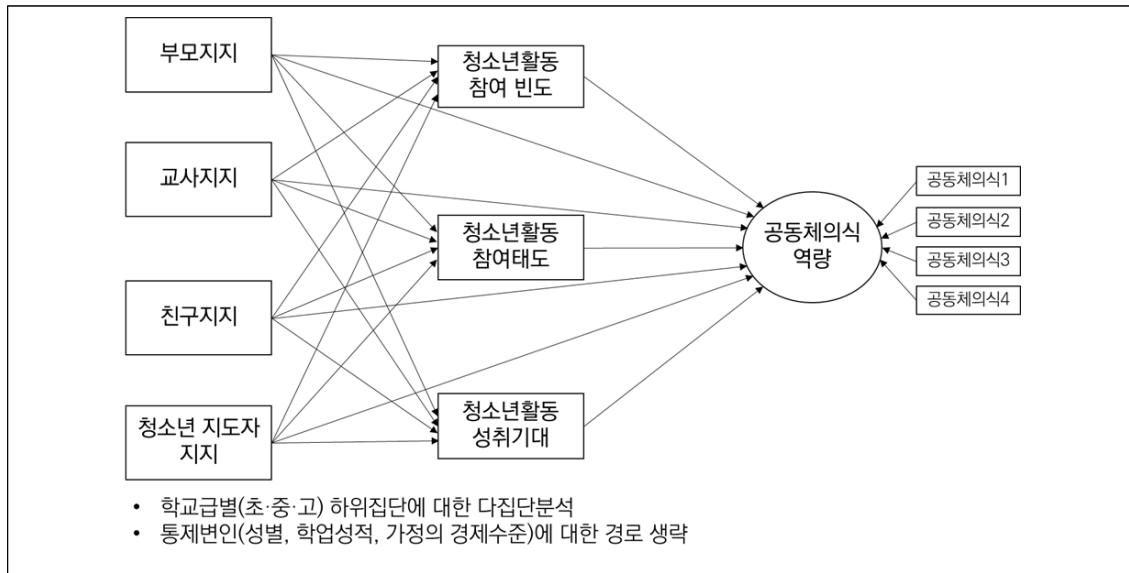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I. 선행연구 검토

### 1. 사회적지지와 청소년활동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 영향으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지원을 의미한다(Friedlander, Reid, Shupak & Cribbie, 2007). 청소년 시기는 일반적으로 부모, 교사, 친구 등 유의미한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타인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지지를 많이 지각한 청소년은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심리사회적 적응력이 높으며, 문제행동을 낮추는 등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임성옥, 박민정, 2017; 정승현, 심미영, 2014; Rueger, Malecki & Demaray, 2010; Wight, Botticello & Aneshensel, 2006).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청소년활동 참여를 높이고, 활동이 목표하고자 하는 긍정적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관한 실증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신체 및 스포츠활동에 관해 이루어져왔다(최충식, 박문수, 2012; Beets, Cardinal & Alderman, 2010). 이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즐거움과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ilva, Lott, Mota & Welk, 2014). 그러나, 청소년의 신체 및 스포츠활동은 청소년활동 중 하나이며, 사회적지지와 다양한 종류의 청소년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그에 따른 참여(engagement)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청소년활동과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다양한 조직 및 집단에서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갖는 소속감과 유대감,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데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Chavis & Pretty, 1999; Long & Perkins, 2007). 공동체의식은 과거, 지리적인 특성이 강조되어왔던 데 반해 최근에는 정보화와 교통발달로 지리적 한계가 낮춰짐에 따라 공동체의 사회관계적, 심리적 측면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Mannarini & Fedi, 2009; McMillan & Chavis, 1986). 공동체의식에 대해 Sarason(1974)는 가용성(available), 지지성(supportive) 및 의존성(dependable)을 핵심개념으로 제시하며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언제라도 의존할 수 있는 지지적인 관계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 후 McMillan과 Chavis(1986)는 소속감 또는 개인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느낌(membership), 소속된 집단에서의 집단적 영향력(influence), 공동체에 소속되어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느낌의 강화(reinforcement) 및 공유된 정서적 유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의 네 가지 요소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에도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소속감의 요소를 포함하여 박재숙(2010)은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소속감과 상호의존성, 상호헌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권혜원(2004)은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움, 봉사, 기부 및 환경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공동체의식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의 발달은 성인기의 시민성과 사회참여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박현정, 이진실, 이용석, 2015). 또한, 청소년들은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함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정체성을 발달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래사회는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인구, 사회, 문화 배경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시대이므로, 사회통합에 있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성훈, 2015). 이에 따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인재상 중 하나로 “시민성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여”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4).

청소년활동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청소년활동이 공동체의식 개발에 효과적임을 검증해오고 있다. 청소년활동은 대인관계 능력과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며(Checkoway, Allison & Montoya, 2005), 청소년활동이 적극적일수록 사회성 발달이 높고 의사결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종수, 성준모, 2013). 더불어, 청소년들은 다양한 리더십 교육, 체험학습, 교류활동 등의 참여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며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관우, 남진열, 2011; 박재숙, 2010; 박현정, 이진실, 이용석, 2015). 이렇듯 청소년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의식을 높인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청소년활동 참여와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요소를 단순히 참가여부 혹은 참가빈도를 넘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가 등 참여(engagement)의 구인을 반영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 3. 사회적지지와 공동체의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체의식이 사회 및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유대감과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한다는 개념은 각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맺고 그 관계를 통해 발전해나간다는 기본인식을 전제로 하게 된다. 사회적지지는 이러한 인식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변화의 토대가 된다. 박수원과 김셋별(2016)은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 검증을 통해 두 변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밝혔다. 청소년 시기는 부모뿐 아니라 또래, 그리고 교사와 같이 중요한 관계에 있는 성인 인물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로부터 정서적 에너지를 얻는 시기이다. 그로 인해, 청소년 시기의 사회적지지와 공동체의식 간의 연구는 그간 그들이 속한 학교공동체 의식 혹은 학교적응과 관련지어 연구가 이루어졌다(김민선, 손병덕, 2019; 김위정,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또래와 교사의 지지는 부모의 지지보다 학교 경험과 참여에 더 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sterman, 2000; Wentzel, 1998),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와 친구들의 사회적지지와 안정감이 학교 교사와 급우 관계를 통해 학교공동체 참여를 높인다는 결과가 있다(Vieno, Perkins, Smith & Santinello, 2005).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경험하도록 지지하는 것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의 적응을 돕고, 공동체의식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아 이는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탐색적 경로를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도에 수집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활동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해마다 표집하여 조사한 횡단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4~고3 학생 총 9,041명 데이터 중 청소년활동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 8,785명을 분석하였다. 이중 남학생은 4,520명(51.5%), 여학생은 4,265명(48.5%)이고, 초등학생은 2,771명(31.5%), 중학생은 2,569명(29.2%), 고등학생은 3,445명(39.2%)이다.

#### 2. 측정도구

##### 1) 독립변인

독립변인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사용되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단일문항(“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주거나 지원해 주었습니까?”)에 대해 1)부모님 혹은 보호자, 2)학교 선생님, 3)친구, 4)청소년지도자(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의 청소년전문가)로 구분하여 5점 척도(1=전혀 지원이 없다~5=매우 지원이 많다)로 측정되었다. 청소년이 각 대상별로 지각한 사회적지지의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각각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 2) 매개변인

매개변인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빈도, 참여태도 및 성취기대이다. 본 자료에서 청소년활동은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활동 등 열 개의 활동 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56개의 세부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빈도를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는 청소년 모의창업활동, 경제캠프활동, 진로탐색활동, 직업현장체험활동, 기타 등 5개의 세부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1=참여한 적 없음,



2=1~2번, 3=3~4번, 4=5번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며, 모든 활동에서 ‘참여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한 케이스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열 개의 각 활동 구분에 참여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잠재계층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에 위계적인 차이만 있을 뿐 특징적인 차이를 나타낼만한 계층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청소년활동을 전체 평균하여 참여빈도 변수로 활용하였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태도는 단일문항(“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에 대해 5점 척도(1=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5=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로 측정되었다. 청소년활동 성취기대 변인도 마찬가지로 단일문항(“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까?”)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5=아주 기대가 컸다)로 측정되었다.

### 3)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인 공동체의식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권혜원(2004)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문항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여기에서의 공동체의식은 시민의식연구를 토대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문항은 ‘1)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2)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3)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4)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다.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값이 클수록 공동체의식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1로 나타났다.

### 4) 통제변인

공동체의식은 성별(박재숙, 2010)과 학업성취도(신혜숙, 2015)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김위정, 2012)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결과에 따라, 이러한 변인들은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성별은 더미변수(0=남자, 1=여자)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학업성적은 ‘학생의 학업성적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에 5점 척도(1=매우 낮은 수준 ~5=매우 높은 수준)로 조사되었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은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에 7점 척도(1=매우 낮은 수준~7=매우 높은 수준)로 조사되었다.

### 3. 분석방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교사, 친구,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청소년활동 지지가 청소년활동의 참여빈도, 태도 및 성취기대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고, 학교급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에 대한 다집단 분석은 특정 회귀계수 크기를 집단 간 비교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정과 요인계수 동일성(factor loading invariance) 검정 후 잠재변수들 간 경로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는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 검정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홍세희, 2011). 형태동일성 모형은 요인 수와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문항의 수가 비교집단에서 동일한가를 검증하는 것으로(Chen, 2007), 각 집단별로 모형을 자료에 적합하였을 때 모형적합도 지수가 우수하면 형태동일성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형태동일성 모형이 충족되면, 요인계수 동일성 모형을 검정한다. 요인계수 동일성 모형은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비교집단 간에 동일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잠재변인은 종속변인인 공동체의식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의 요인부하량을 세 집단 간에 제약한 모형과 자유롭게 추정된 모형을 비교하여 요인계수 동일성 모형이 만족되는지 확인하였다. 요인계수 동일성 모형이 만족되면, 구조동일성 모형 검정을 통해 연구모형의 각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요인계수 동일성모형과 각 경로별 제약모형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가장 차이가 없는 경로부터 하나씩 제약해가며, 더 이상 제약모형을 지지하지 않을 때까지 모형 간 비교를 진행하여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최종모형을 선택한다.

자료는 Mplus 7.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형추정에는 MLR(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을 사용하였다. 변인별로 결측값이 존재하여 (0.1~1.4%),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chi^2$ , TLI, CFI, RMSEA를 검토하였다.  $\chi^2$ 은 영가설이 엄격해서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TLI, CFI, RMSEA는 모형의 간명성과 양호도를 고려한 좋은 적합도 지수로 알려져 있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0이상을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고, RMSEA는 .08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한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Tucker & Lewis, 1973). 서로 내재된 모형 비교에는 LRT(likelihood ratio test) 차이검정을 실시하는데, 모형 추정에 MLR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Satorra와 Bentler(2001)의 SB-LRT(Satorra-Bentler scaled likelihood ratio test)가 일반적인 LRT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였다. 또한 표본의 크기가 300개 이상인 경우  $\chi^2$  차이 검증 방법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형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Chen, 2007;

Cheung & Rensvold, 2002; Rutowski & Svetina, 2014). 적합도에 관한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측정모형동일성 검정 시,  $\Delta CFI$ 가 -.01이내,  $\Delta RMSEA$ 가 .015이내일 경우, 두 모형의 적합도는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Chen, 2007). 이에 따라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과 이전모형의 CFI와 RMSEA 차이가 기준값 이내일 경우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기술통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세 집단 간 평균차이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기술통계는 학교급별 결과를, 상관분석은 전체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모지지와 교사지지, 교사지지와 친구지지, 참여태도와 성취기대 간에 중간 정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들의 왜도는 -0.72~1.71로 절대값 2를 넘지 않았고, 첨도는 -0.98~4.6으로 절대값 7을 넘지 않아 주요변인들의 정규성은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0).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          | 부모지지 | 교사지지 | 친구지지 | 청소년지도자지지 | 참여빈도 | 참여태도 | 성취기대 | 공동체의식 |
|----------|------|------|------|----------|------|------|------|-------|
| 부모지지     | 1    |      |      |          |      |      |      |       |
| 교사지지     | .43  | 1    |      |          |      |      |      |       |
| 친구지지     | .36  | .44  | 1    |          |      |      |      |       |
| 청소년지도자지지 | .27  | .42  | .38  | 1        |      |      |      |       |
| 참여빈도     | .28  | .23  | .18  | .19      | 1    |      |      |       |
| 참여태도     | .26  | .22  | .18  | .19      | .27  | 1    |      |       |
| 성취기대     | .29  | .24  | .21  | .22      | .26  | .42  | 1    |       |
| 공동체의식    | .23  | .20  | .15  | .16      | .22  | .26  | .29  | 1     |

|                |           | 부모지지 | 교사지지 | 친구지지  | 청소년지도자지지 | 참여빈도  | 참여태도 | 성취기대 | 공동체의식 |
|----------------|-----------|------|------|-------|----------|-------|------|------|-------|
| 초등<br>학생       | <i>M</i>  | 3.72 | 3.34 | 2.78  | 2.78     | 1.58  | 3.40 | 3.34 | 3.61  |
|                | <i>SD</i> | 1.18 | 1.15 | 1.21  | 1.29     | .39   | .95  | 1.02 | .85   |
| 중학생            | <i>M</i>  | 3.47 | 3.28 | 2.85  | 2.81     | 1.47  | 3.40 | 3.07 | 3.51  |
|                | <i>SD</i> | 1.13 | 1.02 | 1.11  | 1.21     | .36   | .95  | 0.99 | .85   |
| 고등<br>학생       | <i>M</i>  | 3.16 | 3.15 | 2.92  | 2.67     | 1.36  | 3.17 | 2.98 | 3.55  |
|                | <i>SD</i> | 1.12 | 1.03 | 1.05  | 1.15     | .28   | 1.00 | 1.00 | .81   |
| 일원<br>분산<br>분석 | 초-중       | .25* | .07  | -.07  | -.02     | .12*  | -.00 | .27* | .10*  |
|                | 초-고       | .56* | .19* | -.13* | .12*     | -.12* | .23* | .36* | .05*  |
|                | 중-고       | .31* | .12* | -.06  | .14*     | .10*  | .23* | .09* | -.05  |

주. 모든 상관값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 결과 \*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 2. 연구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477.50(df=32, p=.000)$ ,  $TLI=.934$ ,  $CFI=.970$ ,  $RMSEA=.040$ 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에 대한 회귀 계수와 통계적 유의성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모, 교사, 친구, 청소년지도자 지지는 청소년활동 참여빈도, 참여태도, 성취기대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공동체의식도 유의하게 높았으나, 친구지지는 공동체의식 향상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통제변수로 사용한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은 청소년활동빈도, 참여태도, 성취기대 및 공동체의식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모형의 주요 경로계수

|          | 직접효과 |      | <i>B</i> | <i>S.E</i> | $\beta$ |
|----------|------|------|----------|------------|---------|
| 부모지지     | →    | 참여빈도 | .052 *** | .003       | .170    |
| 교사지지     | →    | 참여빈도 | .027 *** | .004       | .081    |
| 친구지지     | →    | 참여빈도 | .013 **  | .004       | .041    |
| 청소년지도자지지 | →    | 참여빈도 | .025 *** | .003       | .086    |
| 부모지지     | →    | 참여태도 | .126 *** | .011       | .150    |
| 교사지지     | →    | 참여태도 | .070 *** | .012       | .076    |

| 직접효과     |   |       | <i>B</i> | <i>S.E</i> | $\beta$ |
|----------|---|-------|----------|------------|---------|
| 친구지지     | → | 참여태도  | .046 *** | .011       | .053    |
| 청소년지도자지지 | → | 참여태도  | .069 *** | .010       | .086    |
| 부모지지     | → | 성취기대  | .151 *** | .011       | .174    |
| 교사지지     | → | 성취기대  | .075 *** | .013       | .079    |
| 친구지지     | → | 성취기대  | .059 *** | .012       | .065    |
| 청소년지도자지지 | → | 성취기대  | .089 *** | .010       | .106    |
| 부모지지     | → | 공동체의식 | .041 *** | .008       | .075    |
| 교사지지     | → | 공동체의식 | .037 *** | .009       | .062    |
| 친구지지     | → | 공동체의식 | .010     | .008       | .018    |
| 청소년지도자지지 | → | 공동체의식 | .016 *   | .007       | .031    |
| 참여빈도     | → | 공동체의식 | .157 *** | .021       | .088    |
| 참여태도     | → | 공동체의식 | .079 *** | .009       | .122    |
| 성취기대     | → | 공동체의식 | .108 *** | .009       | .172    |

주1. \* $p < .05$ , \*\* $p < .01$ , \*\*\* $p < .001$

주2. B: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beta$ : 표준화된 경로계수, S.E: 표준오차, 통제변수 결과는 생략함.

또한, 연구모형의 청소년활동의 사회적지지가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빈도, 참여태도, 성취기대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표 3). 분석 결과, 모든 매개경로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 매개경로     |   |              | <i>B</i> | <i>S.E</i> | 95% 신뢰구간     |
|----------|---|--------------|----------|------------|--------------|
| 부모지지     | → | 참여빈도 → 공동체의식 | .008     | .001       | (.006, .011) |
| 부모지지     | → | 참여태도 → 공동체의식 | .010     | .002       | (.007, .013) |
| 부모지지     | → | 성취기대 → 공동체의식 | .016     | .002       | (.013, .020) |
| 교사지지     | → | 참여빈도 → 공동체의식 | .004     | .001       | (.003, .006) |
| 교사지지     | → | 참여태도 → 공동체의식 | .006     | .001       | (.003, .008) |
| 교사지지     | → | 성취기대 → 공동체의식 | .008     | .002       | (.005, .011) |
| 친구지지     | → | 참여빈도 → 공동체의식 | .002     | .001       | (.001, .003) |
| 친구지지     | → | 참여태도 → 공동체의식 | .004     | .001       | (.002, .006) |
| 친구지지     | → | 성취기대 → 공동체의식 | .006     | .001       | (.004, .009) |
| 청소년지도자지지 | → | 참여빈도 → 공동체의식 | .004     | .001       | (.002, .005) |
| 청소년지도자지지 | → | 참여태도 → 공동체의식 | .006     | .001       | (.004, .007) |
| 청소년지도자지지 | → | 성취기대 → 공동체의식 | .010     | .001       | (.007, .012) |

### 3. 학교급별 다집단분석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가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와 같이 집단별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동일성과 요인계수동일성 모형 간  $\Delta\chi^2$ 는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동일화 제약은 기각되지만 CFI 차이는 -.006, RMSEA 차이는 .002로  $\Delta CFI$ 가 -.01이내,  $\Delta RMSEA$ 가 .015이내이므로 보다 간명한 모형인 요인계수 동일성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 4  
집단 간 요인구조 비교를 위한 측정동일성 검정 결과

| 모형          | $\chi^2$ | df     | p    | CFI  | TLI  | RMSEA | $\Delta CFI$ | $\Delta RMSEA$ | $p(\Delta\chi^2)$ |
|-------------|----------|--------|------|------|------|-------|--------------|----------------|-------------------|
| 집단별<br>기저모형 | 초등학생     | 148.92 | 34   | .000 | .973 | .942  | .036         | -              | -                 |
|             | 중학생      | 189.51 | 34   | .000 | .966 | .925  | .043         | -              | -                 |
|             | 고등학생     | 223.12 | 34   | .000 | .964 | .922  | .042         | -              | -                 |
| 형태동일성       | 561.56   | 102    | .000 | .967 | .932 | .040  | -            | -              | -                 |
| 요인계수 동일성    | 650.87   | 108    | .000 | .961 | .925 | .042  | -.006        | .002           | .000              |

구조동일성 모형은 집단 간 차이가 작은 계수부터 동일화 제약을 하며 이전 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연구모형의 총 19개 경로 중에서 표 5에서와 같이, 15개의 경로가 제약된 모형(15)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5  
구조동일성 모형 비교 검정 결과

| 모형  | 제약경로            | $\chi^2$ | df  | $p(\Delta\chi^2)$ | CFI  | TLI  | RMSEA | 판정 |
|-----|-----------------|----------|-----|-------------------|------|------|-------|----|
| (1) | 청소년지도자지지 → 성취기대 | 651.23   | 110 | -                 | .961 | .926 | .041  | 채택 |
| (2) | 부모지지 → 공동체의식    | 651.48   | 112 | .884              | .961 | .928 | .041  | 채택 |
| (3) | 성취기대 → 공동체의식    | 651.65   | 114 | .917              | .962 | .929 | .040  | 채택 |
| (4) | 참여태도 → 공동체의식    | 652.62   | 116 | .615              | .962 | .931 | .040  | 채택 |
| (5) | 부모지지 → 참여태도     | 653.02   | 118 | .818              | .962 | .932 | .040  | 채택 |
| (6) | 청소년지도자지지 → 참여태도 | 654.98   | 120 | .375              | .962 | .933 | .039  | 채택 |
| (7) | 친구지지 → 공동체의식    | 655.76   | 122 | .679              | .962 | .934 | .039  | 채택 |
| (8) | 부모지지 → 성취기대     | 656.15   | 124 | .822              | .962 | .936 | .039  | 채택 |

| 모형          | 제약경로        |               | $\chi^2$      | df         | $p(\Delta\chi^2)$ | CFI         | TLI         | RMSEA       | 판정        |
|-------------|-------------|---------------|---------------|------------|-------------------|-------------|-------------|-------------|-----------|
| (9)         | 교사지지        | → 참여빈도        | 661.53        | 126        | .068              | .962        | .936        | .038        | 채택        |
| (10)        | 부모지지        | → 참여빈도        | 664.80        | 128        | .194              | .962        | .937        | .038        | 채택        |
| (11)        | 참여빈도        | → 공동체의식       | 667.78        | 130        | .226              | .962        | .938        | .038        | 채택        |
| (12)        | 친구지지        | → 성취기대        | 672.50        | 132        | .094              | .961        | .939        | .038        | 채택        |
| (13)        | 청소년지도자지지    | → 참여빈도        | 672.31        | 134        | .907              | .962        | .940        | .037        | 채택        |
| (14)        | 친구지지        | → 참여빈도        | 672.63        | 136        | .849              | .962        | .941        | .037        | 채택        |
| <b>(15)</b> | <b>교사지지</b> | <b>→ 참여태도</b> | <b>678.94</b> | <b>138</b> | <b>.043</b>       | <b>.961</b> | <b>.941</b> | <b>.037</b> | <b>채택</b> |
| (16)        | 친구지지        | → 참여빈도        | 688.53        | 140        | .008              | .961        | .941        | .037        | 기각        |

주. 모형(2)부터 각 제약경로는 이전 모형에 누적으로 동일화 제약이 가해짐.

최종모형에 대한 회귀계수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제약된 경로의 경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같은 값으로, 비제약된 경로는 서로 다른 회귀계수가 산출되었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결과가 달리 나타났다. 먼저 세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된 경로를 살펴보면, 부모, 교사, 친구, 청소년지도자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활동 참여빈도가 유의하게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태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친구, 청소년지도자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활동에 대한 성취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학급 모두에서 부모지지가 많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는 세 학교급 모두 공동체의식 향상과 관련하지 않았다. 또한, 참여빈도가 많을수록, 참여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성취기대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모두 공동체의식과 유의한 정적 관계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동체의식이 높고,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약된 경로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친구지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참여태도와 유의하게 관련하였으나, 초등학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교사지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성취기대를 높게 지각하는 것과 관련하였으나, 초등학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교사지지는 공동체의식 향상에 고등학교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청소년지도자의 지지가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유의하였다. 더 나아가, 비제약경로인 경우에는 두 학교급 간 회귀계수의 Z검정을 통해 어느 학교급 간 차이가 유의한지 검정하였다. 그 결과, 네 개 직접경로 모두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세 개 경로(친구지지

→참여태도, 교사지지→성취기대, 교사지지→공동체의식)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더 강한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자→공동체의식의 경로에는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서 더 강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최종모형의 회귀계수 결과

| 직접효과     |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
|          |   |       | <i>B</i> | $\beta$ | <i>B</i> | $\beta$ | <i>B</i> | $\beta$ |
| 부모지지     | → | 참여빈도  | .027 *** | .073    | .027 *** | .073    | .027 *** | .076    |
| 교사지지     | → | 참여빈도  | .012 *   | .032    | .012 *   | .030    | .012 *   | .031    |
| 친구지지     | → | 참여빈도  | .019 *** | .052    | .019 *** | .050    | .019 *** | .049    |
| 청소년지도자지지 | → | 참여빈도  | .029 *** | .086    | .029 *** | .083    | .029 **  | .083    |
| 부모지지     | → | 참여태도  | .118 *** | .146    | .118 *** | .141    | .118 *** | .132    |
| 교사지지     | → | 참여태도  | .074 *** | .089    | .074 *** | .080    | .074 *** | .076    |
| 친구지지     | → | 참여태도  | .011     | .014    | .035 *   | .041    | .102 *** | .106    |
| 청소년지도자지지 | → | 참여태도  | .067 *** | .090    | .067 *** | .085    | .067 *** | .077    |
| 부모지지     | → | 성취기대  | .139 *** | .160    | .139 *** | .158    | .139 *** | .156    |
| 교사지지     | → | 성취기대  | .032     | .036    | .068 **  | .071    | .120 *** | .123    |
| 친구지지     | → | 성취기대  | .072 *** | .085    | .072 *** | .080    | .072 *** | .076    |
| 청소년지도자지지 | → | 성취기대  | .087 *** | .110    | .087 *** | .106    | .087 *** | .101    |
| 부모지지     | → | 공동체의식 | .054 *** | .099    | .054 *** | .094    | .054 *** | .100    |
| 교사지지     | → | 공동체의식 | .024     | .042    | .018     | .028    | .071 *** | .119    |
| 친구지지     | → | 공동체의식 | .004     | .008    | .004     | .007    | .004     | .007    |
| 청소년지도자지지 | → | 공동체의식 | .032 *   | .063    | .040 *   | .074    | -.012    | -.023   |
| 참여빈도     | → | 공동체의식 | .078 *** | .053    | .078 *** | .051    | .078 *** | .052    |
| 참여태도     | → | 공동체의식 | .084 *** | .123    | .084 *** | .122    | .084 *** | .138    |
| 성취기대     | → | 공동체의식 | .113 *** | .178    | .113 *** | .172    | .113 *** | .184    |

주1. \* $p < .05$ , \*\* $p < .01$ , \*\*\* $p < .001$

주2. *B*: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beta$ : 표준화된 경로계수, 제약 경로에 굵은 표시하였음.

최종모형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는 두 개의 직접경로의 곱에 대한 가설검정으로, 최종모형에서 15개의 직접경로가 제약된 모형이 채택되었으므로 대부분의 매개효과가 학교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제약된 경로가 있는 매개효과의 경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모두 유의하였으나, 교사지지→참여빈도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와 친구지지→참여빈도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는 부스트래핑 분포에서의 하위 2.5%의 값이 0으로 유의미한 것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약된 네 개 경로 중 두 개 경로는 종속변수인 공동체의식에 대한 직접경로이며 나머지 두 개 경로만 매개변수에 대한 직접경로(즉, 친구지지→참여태도, 교사지지→성취기대)이므로 이 두 개 경로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대한 간접효과에서는 학교급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초등학교 집단에서 교사지지가 성취기대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및 친구지지가 참여태도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최종모형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 매개경로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부모지지     | → 참여빈도 → 공동체의식 |               | (.001, .003) |              |
| 부모지지     | → 참여태도 → 공동체의식 |               | (.007, .013) |              |
| 부모지지     | → 성취기대 → 공동체의식 |               | (.012, .019) |              |
| 교사지지     | → 참여빈도 → 공동체의식 |               | (.000, .002) |              |
| 교사지지     | → 참여태도 → 공동체의식 |               | (.004, .009) |              |
| 교사지지     | → 성취기대 → 공동체의식 | (-.001, .008) | (.003, .013) | (.009, .018) |
| 친구지지     | → 참여빈도 → 공동체의식 |               | (.000, .003) |              |
| 친구지지     | → 참여태도 → 공동체의식 | (-.002, .003) | (.000, .006) | (.005, .012) |
| 친구지지     | → 성취기대 → 공동체의식 |               | (.005, .011) |              |
| 청소년지도자지지 | → 참여빈도 → 공동체의식 |               | (.001, .004) |              |
| 청소년지도자지지 | → 참여태도 → 공동체의식 |               | (.004, .008) |              |
| 청소년지도자지지 | → 성취기대 → 공동체의식 |               | (.007, .013) |              |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모, 교사, 친구, 청소년지도자의 지지가 청소년활동 참여빈도, 참여태도, 성취기대를 매개로 공동체의식 역량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와 그러한 관계가 학교급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에 대해 사회적지지의 유형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모지지는 청소년활동 참여빈도를 높이고, 참여태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며, 자신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매개로 공동체의식 역량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접, 간접효과는 교사나

친구, 청소년지도자의 지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6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참조),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부모와 어릴 때부터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부모의 가치와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부모들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데 문지기(gate keeper)로의 역할을 하며,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신념 및 가치가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Dempsey, Kimiecik & Horn, 1993; Eccles & Harold, 1991; Kimiecik, Horn & Shurin, 1996)를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동체의식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식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조아미와 신태수(2012)는 청소년활동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낮아지며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참여 수준이 높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청소년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청소년활동을 강화하거나 참여도를 낮게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녀를 지지해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사지지는 모든 학교급에서 청소년활동의 참여빈도와 적극적인 참여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이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도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이 발전하리라 기대하는 성취기대에 대한 효과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집단에서만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이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효과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집단에서 지각한 교사지지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양적 측면의 참여와 참여태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나, 자신의 발전에 대한 기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로,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사지지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부모지지에서와 달리 공동체의식에 대한 교사지지의 직접효과는 고등학교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즉, 중학생 집단에서의 교사지지에 대한 공동체의식 역량은 성취기대를 통한 매개효과만 유의하였으며, 초등학생은 이러한 매개효과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교사지지에 대한 효과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짐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것으로, 최종모형의 회귀계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교사지지→성취기대: 초등학교 .036, 중학교 .071, 고등학교 .123, 교사지지→공동체의식: 초등학교 .042, 중학교 .028, 고등학교 .119).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학교급이 높을수록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이숙정, 2006) 및 학교급이 높을수록 교사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연구(신명옥, 장덕희, 2017)와 맥을 같이 한다. 최근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활동과 학교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며,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활동임을 학생들에게 강조하여 지지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청소년활동에 대한 친구지지는 모든 학교급에서 참여빈도와 성취기대를 유의하게 높이고 이를 통한 공동체의식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태도에 대한 친구지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집단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참여태도를 매개로 한 공동체의식 향상 또한 중·고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친구지지가 적극적인 태도로 이어지지 않아 아직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적극적인 태도 형성에는 부모나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등 성인들의 지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또래의 지지가 심리적인 영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학교 시기부터 친구지지는 참여태도에도 영향을 주어 심리적인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모든 학교급에서 친구지지는 공동체의식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 친구지지는 역량 향상에 청소년활동 참여를 통한 간접적인 경로로써 의미가 있었다.

청소년지도자 지지는 모든 학교급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빈도, 참여태도 및 성취기대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를 매개로 한 공동체의식에도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교사나 친구보다도 청소년 참여빈도, 참여태도 및 성취기대에 부모 다음으로 크게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단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지지가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 시기 공동체의식에 대한 직접효과는 청소년지도자 지지가 아닌 교사지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beta = .119$ ). 이는 부모의 영향( $\beta = .100$ )보다 더 큰 것으로 고등학교 시기는 사회적 지지원 중에서도 교사의 영향이 더 중요한 시기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실증연구로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청소년활동 참여(행동, 태도, 기대)를 매개로 공동체의식 역량에 영향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 경로를 학교급별로 검증한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에 부모, 교사, 동료, 청소년지도자 등 사회적 환경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참여에 관한 부모 및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부 학생과 부모의 경우, 청소년활동은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학업적 지지가 높은 경우, 청소년활동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김성훈, 2015). 따라서 사회적 지지원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단순히 참여활동의 양적인 증가만이 아닌 참여태도 및 발전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연구가 수행되고, 실천적·제도적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예: 임지연, 이정주, 김정숙, 이선영, 2014; 황세영, 최정원, 문지혜, 최윤, 2017), 아직도 청소년활동은 그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학교 교과서와 연계한 활동 및 미래 진로 개발을 위한 체계화 등의 과제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원인 부모와 교사 그리고 청소년 자신들에게 청소년활동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며 이를 통해 향후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지지는 일반적인 사회적지지로 해석하는데 있어 제한점을 지닌다. 사회적지지는 애정, 신뢰, 이해 등의 정서적지지, 정보, 조언, 경제적 도움 등의 물질적 혹은 도구적 지지, 자기와 관련한 평가를 제공해주는 평가적지지 등으로 개념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박지원, 1985; Thoits, 1986), 본 연구에서는 원데이터에서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포괄적인 사회적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의 하위개념이 반영된 구체적인 문항의 개발과 함께 요인 간 관계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를 청소년활동의 선행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의 질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들에 비추어보면(김미혜, 옥경희, 천희영, 2001), 청소년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지지를 더 높이 인지하고, 그로 인해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는 설명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실제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관계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해 참여빈도, 참여태도, 성취기대를 연구모형에서 모두 병렬적으로 설정하였으나, 기대-가치이론에 따르면, 성취할 것이라는 기대와 가치는 모두 참여(engagement)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므로, 성취기대가 참여빈도와 참여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더불어, 공동체의식에는 부모의 양육행동 혹은 양육방식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므로(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최미혜, 2016),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과의 관계 설정이 포함된 모형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관우, 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교육부 (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증보편.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 교육부 보도자료(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 발표(2015.9.23.)).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권일남, 전명순, 서재범 (2021).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방향성 모색-경기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1), 97-119. doi:10.36697/skya.2021.7.1.97
- 권혜원 (2004). 중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0-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미해, 옥경희, 천희영 (2001). 초기 청소년기의 방과후 활동과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9(6), 93-108.
- 김민선, 손병덕 (2019).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종단 매개효과: 긍정적 청소년발달 (PYD) 이론의 발달자산모형 적용. **청소년학연구**, 26(12), 425-453. doi:10.21509/KJYS.2019.12.26.12.425
- 김성훈 (2015). 청소년의 봉사 활동과 공동체 의식: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6(2), 237-259. doi:10.14816/sky.2015.26.2.237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도종수, 성준모 (2013).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45-173.
- 박수원, 김솅별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5-32. doi:10.14816/sky.2016.27.2.5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 교육연구**, 16(4), 105-127.
- 박현정, 이진실, 이용석 (2015).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3(2), 235-257.

- 백순근, 신안나, 김연경, 손주영, 윤승혜 (2017). 고등학생용 여섯 가지 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30(3), 363-395.
- 신명옥, 장덕희 (2017).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생태체계적관점의 다중매개효과: 학교급별 다중집단분석. **학교사회복지**, 39, 259-289.
- 신혜숙 (2015).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공동체의식, 학교행복에 관한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 요인 탐색. **교육평가연구**, 28(1), 53-76.
- 신혜정, 서영석 (2006). 청소년의 학교 급별(초, 중, 고)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 간의 구조모형 분석. **상담학연구**, 7(1), 117-130.
- 이숙정 (2006). 학교변인과 학생들의 교사신뢰와의 관계: 학교급, 학교학급규모, 남녀공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4(1), 171-194.
- 임성옥, 박민정 (2011). 부모의 양육태도유형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빈곤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0), 229-252.
- 임지연, 김정주, 김정숙, 이선영 (201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중심으로**(연구보고 14-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승현, 심미영 (2014). 청소년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275-284.
- 조아미, 신태수 (201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유형과 특성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3(2), 161-184.
- 최미혜 (2016).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7(2), 59-92. doi:10.14816/sky.2016.27.2.59
- 최충식, 박문수 (2012).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사회적지지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0(3), 1-15.
- 통계청 (2020). **통계청 보도자료(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2020.07.30.))**. 통계청 홈페이지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3477&topic=>)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보도자료(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선정·발표(2018.12.2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https://m.kywa.or.kr>)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11).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양한 확장: 중급**. 에스앤엠 리서치 그룹.
- 황세영, 최정원, 문지혜, 최윤 (2017).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17-R0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eets, M. W., Cardinal, B. J., & Alderman, B. L. (2010). Parental social support and the physical activity-related behaviors of youth: A review. *Health Education & Behavior, 37*(5), 621-644. doi:10.1177/1090198110363884
- Benson, P. L. (2006). *All kids are our kids: What communities must do to raise caring and responsible children and adolescents*. San Francisco: Jossey-Bass.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doi:10.1037/0033-2909.107.2.23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uyere, B. L., Wesson, M., & Teel, T. (2012). Incorporating environmental education into an urban after-school program in New York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 Science Education, 7*(2), 327-341.
- Chavis, D. M., & Pretty, G. (1999). Sense of Community: Advances in measurement and applic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635-642. doi:10.1002/(SICI)1520-6629(199911)
- Checkoway, B., Allison, T., & Montoya, C. (2005). Youth Participation in public policy at the municipal level.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 1149-1162. doi:10.1016/j.childyouth.2005.01.001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3), 464-504. doi:10.1080/10705510701301834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doi:10.1207/S15328007SEM0902\_5
- Dempsey, J. M., Kimiecik, J. C., & Horn, T. S. (1993). Parental influence on children's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An expectancy-value approach. *Pediatric Exercise Science, 5*(2), 151-167. doi:10.1123/pes.5.2.151
- Eccles, J. S., & Harold, R. D. (1991). Gender differences in sport involvement: Applying the Eccles' expectancy-value model.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3*(1), 7-35. doi:10.1080/10413209108406432

- Friedlander, L. J., Reid, G. J., Shupak, N., & Cribbie, R. (2007).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tress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among first-year undergraduat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8(3), 259-274. doi:10.1353/csd.2007.0024
- Hughes, D., Witherspoon, D., Rivas-Drake, D., & West-Bey, N. (2009). Received ethnic-racial socialization messages and youths' academic and behavioral outcomes: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5(2), 112-124. doi:10.1037/a0015509
- Kimiecik, J. C., Horn, T. S., & Shurin, C. S. (1996).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belief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beliefs, and their 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7(3), 324-336. doi:10.1080/02701367.1996.10607960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erner, R. M. (2005). *Promot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oretical and Empirical Bases*. Paper prepared for the Workshop on the Science of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National Research Council, Washington, DC.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Long, D. A. & Perkins, D. D. (2007). Community social and place predictors of sense of community: A multilevel and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5), 563-581. doi:10.1002/jcop.20165
- Mannarini, T., & Fedi, A. (2009). Multiple senses of community: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2), 211-227. doi:10.1002/jcop.20289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doi:10.1002/1520-6629(198601)
- OECD, D. (2005).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executive summary. <http://www.deseco.admin.ch/bfs/deseco/en/index/02.html>.
- Osterman, K. F. (2000). Students' need for belonging in the school communit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0(3), 323-367. doi:10.2307/1170786



- Rueger, S. Y., Malecki, C. K., & Demaray, M. K. (2010).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sourc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Comparisons across gende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1), 47-61. doi:10.1007/s10964-008-9368-6
- Rutkowski, L., & Svetina, D. (2014). Assessing the hypothesis of measurement invariance in the context of large-scale international survey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74(1), 31-57. doi:10.1177/0013164413498257
- Sarason, S. B. (1974). *The psychology sense of community: Prospect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Jissey-Bass.
- Satorra, A., & Bentler, P. M. (2001). A scaled difference chi-square test statistic for moment structure analysis. *Psychometrika*, 66(4), 507-514. doi:10.1007/BF02296192
- Scales, P. C., & Leffert, N. (2004). *Developmental assets: A synthesis of the scientific research on adolescent development*. Minneapolis, MN: Search Institute.
- Silva, P., Lott, R., Mota, J., & Welk, G. (2014).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youth physical activity behavior. *Pediatric Exercise Science*, 26(1), 86-94. doi:10.1123/pes.2012-0207
- Thoits, P. A. (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16-423. doi:10.1037/0022-006X.54.4.416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doi:10.1007/BF02291170
- Vieno, A., Perkins, D. D., Smith, T. M., & Santinello, M. (2005). Democratic school climate and sense of community in school: A multileve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3/4), 327-341. doi:10.1007/s10464-005-8629-8
- Wentzel, K. R. (1998). Social relationships and motivation in middle school: The role of parents, teachers, and pe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 202-209. doi:10.1037/0022-0663.90.2.202
- Wight, R. G., Botticello, A. L., & Aneshensel, C. S. (2006). Socioeconomic context,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 multilevel investig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1), 109-120. doi:10.1007/s10964-005-9009-2

## ABSTRACT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on community consciousnes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s of participation frequency, participation attitudes, and achievement expectations: A multiple group analysi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Son, Sookyoung\*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on the capacity of community consciousnes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s of participation frequency, attitudes, and achievement expectations. In addition, a multiple 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as a differential effect depending on whether the activities were done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For this purpose, the data for 2018 was colle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to help the researchers to better understand the youth activity participation status which was us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igher the adolescents perceived the support of their parents, teachers, friends, and youth leaders, the higher their scores in terms of participation frequency, positive attitudes, and achievement expectations. These also revealed higher levels of community consciousness. Regardless of school level, parental support showed a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community consciousness. However teacher support, friend support, and youth leader support showed different significant pathways according to school level.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youth activities were also presented.

**Key Words:** youth activity, social support, youth activity engagement, capacity for community consciousness, multiple group analysis

---

\* Woosu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